

# 내가 나온 곳이 화두이니 근본에 바로 들이대라!

## 17면에서 계속

면 짚을 데지.' 하는데 타의에서 찾는 그 마음은 다 지금부터라도 소멸시키고 모든 것을 안에서 구하는 데에 역점을 두시고 탐구하는 데에 역점을 두시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책 한 권 끼고 공책 하나 들고 연필 하나 가지고 책 보따리를 어깨에다 척 둘러 매고 가서 공부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시대가 벌써 변천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 하던 그 방식으로 자손들을 키운대도 아니 됩니다. 지금 시대의 마음의 예너지로 하여금, 그 금강자식의 예너지로 인해서 거기에서 마음과 마음이 이끌려서 한데로 새지 않게 만드는 자식을 가지고 해야지, 몸을 붙들려고 하고 말로 하려고 하니깐 이것은 가뜩이나 창상 없는 감옥에서... 지금 끌려가는 형국인데 말입니다. 허허허,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끌려가서 죽는 사람도 있겠소.

그러나 이 공부는 죽고 사는 게 없고 또 생사윤회에 끄달리지 않으며 또는 우리가 자유권을 가질 수 있는 공부

생각 내서 제가 없이 일을 하는 데는 또 오관을 통해서 몸이 뒷받침을 해 주죠. 이렇게 양면을 다양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불(佛)과 법(法)입니다. '불성과 법이 들어야니므로 승보(僧寶)도 그러하니라.' 한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자 바로 우리의 행이며 말이며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부처님 법이 따로 있고 우리의 생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그것을 고치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렇게 놓고 참선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오손도손 얘기를 하는 것도 참선이요, 말다툼을 한다 하더라도 참선입니다. 만약에 그 근본을, 그렇게 돼 있는 근본을 아실 것 같으면 우리는 화가 나도 화를 자제할 수 있죠. 놓고 돌아가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싸움을 했다고 일년 이년, 생명이 다할 때까지 화가 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장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웃음도 한계가 있고 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속상한 것도 한계가 있고 잘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못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했다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는 지금도 가난한 전세방에 그것도 반쪽으로 나누어진 이 전세방에서 그나마도 모두가 참 공부하지 못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참 살기가 극단하다고 합니다. 살기가 극단한 게 아니라 겁난다 이겁니다.

왜 겁나느냐. 나는 6·25를 지내왔으니까 압니다. 지금은요, 6·25처럼 그렇게만 싸운대도 또 겁 안 납니다. 달아나기만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공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그마한 새우 싸움이 만약에 고래 싸움이 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좀 안됐다 하더라도 한생각으로서 급하면 급한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우리 방식을 틀리면 해가 되겠다.' '천만에! 여기에는 너희들이 손을 못 댈다!' 라는 마음으로 나서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몸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작으나 크나 '이건 못한다' 하는 약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금강자식은 약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식은 한데 합쳐져서... 우리는 조각입니다. 지금 지구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조각입니다. 한 그릇 안에서 우리는 한 살림을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이 자체가 큰 살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살림을 하는 데는 한생각이, 그 생각이 아주 필요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머저리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면 모두가 한생각, 지혜를 이런 때 써야 하는 겁니다. '아하, 저 사람네들은 안하무인이니까 저 사람네들의 주장삼, 즉 말하자면 금강자식이 있는 것을 훌쩍 여기서 붙여 버리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그 사람이 아주 유망하다 할 때는 금강자식을 그 쪽에다가 붙여주죠. 그쪽 자식에다 붙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 백 명의 능력보다도 한생각이 커지게 됩니다. 만약에 열 사람의 능력을 거기다 보충해 준다면, 바로 금강자식의 그 능력에 투입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술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달리 나투어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지혜로써 다치는 대로 하는 것을 알아야지 어떻게 내가 이 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고 이루어주자 가르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깨닫는 데만 역점을 두시는 게 좋다. 그러면서도 가정이라는 조그마한 데의 문제를 놓고 검토하고 실험하다. 만약에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생긴다 할 때 이것을 자식에다 탁 놓는단 말입니다. 놓으면 이 자식은 자기의 근본에서 나오는 분신이라는 에너지처럼 돌아다니며 다 해결을 합니다. 무에서 무로 해결을 하고 유에서는 유대로 부지런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시곗달로 '왔다'입니다. 응? 그렇게 걸리지 않고 능히 한생각에 우주가 들릴 수 있다면, 또 한생각에 우주를 덮을 수 있고 들릴 수

있다면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딴습니까? 이것은 바로 50%의 미완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급 전선서부터 이렇게 진화돼서 나오면서 인간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 등장한 자체가 바로 여기에서 배우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학습 도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공부하는 학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연구하는 연구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탐구해 가지고 지구 자체의 색소에서 벗어나서 우리 한생각으로서 일체 만법의 능력을 바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손이 안 닿는 데가 없고 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어서 바로 우주적으로도 삼천대천세계적으로도 우리는 능히 한생각에 그쪽으로 고개를 끄덕인 해도 벌써 거기 가서 같이 상응하면서 한 번 거기서 하루 동안 살아보기도 할 겁니다. 하루 동안 살고 여기 왔더니 벌써 일주일이 걸렸다고 하던가요? 또 하루 동안 살았더니 아, 일년이 됐습니다. 하루 동안 살았더니 만년이 됐다 합니다.

이 뜻을 잘 살क्षा해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이름을 지어서 하루다 이름이다 한 것이다. 또는 가을이다 봄이다 이

공부시키려는 조짐이구나 하고 좋게 돌려서 놓고, 놓고 또 가다 생각하면 또 한 번 생각해보고 탐구해보고 또 놓아! 그걸 노상 붙들고 가면 그냥 죽죽 오는 것이, 오는 것도 없는 게 오는 것이 그냥 막혀 버리면 살림을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살림을 어떻게 걸리지 않고 하겠습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도 이런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조 홍인 선사가 금강경에서 한 대목을 설해 주시면서 말입니다. "너는 말을 하지 말고 말을 해 보라." 이러니까 육조 스님이 "내 이 몸이 청정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하셨던 겁니다.

청정하다 하는 것은 더럽고 깨끗한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어렵지 않은 거를 내가 다 하는 거를, 일체 만법의 모든 것을 하나도 없이 내가 한다는,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청정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청정함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스스로 내가 갖추어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스스로 내가 흔들리지 않음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스스로 일체 만법의 마음을 나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이렇게 말 한마디 하게 되자 그것은 바로 오조 홍인 선사 육조 혜능 선사

오분향은 우리가 향을 피우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아름다운 향을 피우는 것을 말합니다!

입니다. 자기가 뿌려놓은 씨들도 자기 자식에 의해서, 그 자식의 위력이 딴 데로 새지 않는 마음, 올바른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한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육신, 허수아비 같은 육신만 살아가는 분들이 그것은 안되는 법입니다. 육신은 개방시키면서 마음으로는 항상 그렇게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 잡아당긴다면 그것이 바로 들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버리고, 버린 게 아니라 저절로 스스로 뇌지고 능동적으로 지혜 있게 활용을 하면서 걸림 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벌써 경성해가지고 성불로 가는 도중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 아직 발보가 되지 않은 분이 있고 발보가 돼도 지금 발걸음 하나 때놓을 수 없는 형상인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 층으로 나누어봅시다. 발보가 된 분에 한해서는 그때는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냥 그 금강자식은 내면에서 묵직하게 뒷받침이 되죠. 그래서 위위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나 무무(無漏)의, 진여(眞如)의 무한 능력을 가진 마음이 동시어, 몸이 일을 할 때는 진여의 능력이 뒷받침을 주고, 또 무무의 마음을 한

그러나 이 셋째 일요일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과 또 첫째 일요일날 설법을 들었어도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라고 또 내가 이렇게 말한 것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으면 질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거 이렇게 아는데...' 그런 그분의 생각입니다. 똑같은 말을 했어도 다 각자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돌아가나 하고 한번 특특, 다리를 건너가는데 이 다리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쳐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지금 공부하는 분들, 우리 한마음선원 도량에 흠족하고 기쁜 일이 너무도 많습니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할 함으로써 우리가... 또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즘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납득을 하십니까? 세계적으로 납득을 하고 국가적으로도 납득을 하고 우리 생활적으로도 납득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납득을 하시겠소. 물론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소. 그렇게 아시고 가는 분들이 만약에 이 공부를 하신다면, 한생각에 모든 걸 아주 자재력있게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도 지혜적이고도, 여러분의 불성의 그 능력을 다 같이 한 주먹에 쥐고, 이것은 한 손에 들은 걸로써 한생각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86, '88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지마는 우리

마음을 깨닫는 데만 역점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라는 문제를 놓고 검토하고 실험을 하세요!

말해 세계절을 정해놓은 거니 우리가 얼마나 참 똑똑합니까? 세계절을 이렇게 정해놓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버릴 게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 쓸 게 없다는 것은 너무 나투어서 빨리 돌아가니까 공했다고 한 거지... 여러분이 참 거기를 납득해서 공부하는 데 열심히 할 수 있는 근본을 스님들한테도 자꾸 여쭙고 하시게 참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달았다 할지라도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이 마음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조금 씩이 났다고 해서 내가 나라고 세우고, 모두를 내 눈 아래로 본다면 그것은 이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나가는, 마음 자체가 올바른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꿈에 보인다고 하면서 꿈과 현실을 가리는데 꿈에 이러이러해서 나는 요런 게 됐으니까 요렇게 해야겠다 하는데 왜 꿈을 가지고 생각을 하느냐 말입니다. 꿈도 현실이요, 현실도 꿈이니 들어 아닙니다. 들어 아닌 데서 내 중심을 잡아서 주인공에 탁 놓고 놓은 자체를 생각할 때 믿음직하게 득직하게 하면 바쁜 것이 바쁘지도 않아요! 그랬는데 내가 바쁘지도 않은 사이에 벌써 일은 돌아왔어, 일은 해결이 됐어.

이렇게 되는 것인데 꿈에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꿈에 알았으면 나를

가들이 아니게 하나로 그냥 합쳐져 버렸어요.

합쳐져 버렸으니까 그것은 이쪽 셋팅이러가 저쪽 셋팅이러로 한데, 예를 들어서 자식과 같이 붙어버린 것처럼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고 내가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니 이 바리때와 가사 장삼을 가지고 가다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바리때나 가사 장삼이 법을 주고받게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만년 싸움이 날 테니 이젠 내 데에 없애라.' 이력하고서 딱 마지막 주셨습니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를 가만히 생각할 때에, 서로 들어 말을 할 때는 이게 들어 아닌 것입니다. 말과 뜻이 맞으면, 뜻이 맞지 않으면 벌써 들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뜻이 맞지 않으나 맞으나, 이것이 뜻이 맞지 않게 말을 해서 저쪽 상대방에게 해로운 기체가 보이고 또 역정을 낼 것 같은데 말을 하지 말고 안에다가 놓으면, 거기다가 일일해서 놓으면 바로 그쪽 자식으로 열파가 가죠. 오관을 통해서 다 열파로 통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우주간 법계는 거미줄같이 전부 허공에 쳐져 있다 이겁니다. 아마 천재망월경을 가지고 본다면 한 부분이라도 볼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5년 7월 21일

##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날개) 1만원

※ 사찰 및 단체 다량구매시 특별할인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걸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전화 02)2004-8219 (국민은행) 023-25-0007-617 (주)에이치비씨

## 불자의 긍지 · 수행의 기쁨

#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사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 사 장 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대전 충북지사	대전 / 충북	혜철스님	043)732-5560 / 011-9422-8453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경남 서부일원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 병 수	052)272-0909 / 011-862-5282
경남 남부지국	경남 남부일원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